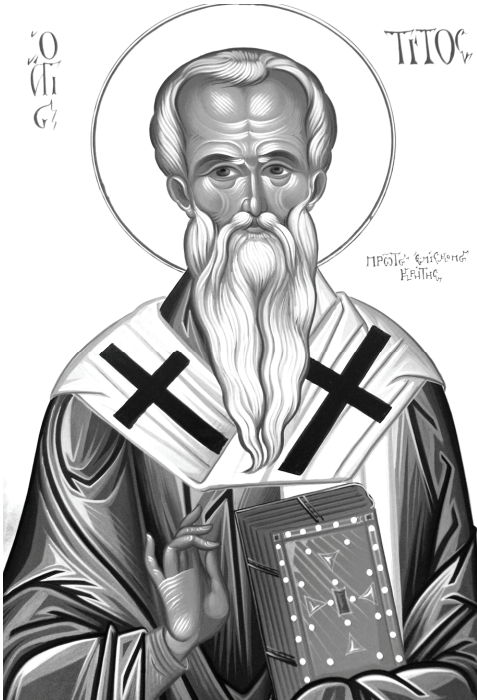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디도 사도

마태오 제12주일

성 안드레아스 군인 순교자

제3조, 조과복음 1

성 요한 크리소스토스 성찬예배에서

- 제1,2응송 / 성모 안식 축일 스티히라 만.
- 제3조 부활 찬양송 / 82, A 213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성모 안식 축일 찬양송 / 181, B 188
- 성당 찬양송
- 성모 안식 축일 시기송 / 181, B 191
- 사도경 : 고린토 전 15, 1-11 / 봉독서 220
- 복음경 : 마태오 19, 16-24 / 115, B 50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 주는 구원의 말씀 성 디도 사도

신약성서에 성 사도 바울로의 14개의 서신 중 “나와 같은 믿음의 생활을 하는 진실된 아들 디도”(디도서 1:4)라고 언급된 크레타섬의 대주교 성 사도 디도(1세기)를 우리 교회는 8월 25일 축일로 기념합니다.

한 사도가 다른 사도에게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관계가 얼마나 성스럽고 견고한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은 영적 가족 관계로서 피를 나눈 관계만큼

혹은 그 보다 더 견고한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을 준 자연적인 부모가 있고, 또한 교회에 들어와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해주신 영적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사도 바울로께서도 디도를 “믿음의 생활을 하는” 진정한 아들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공통된 믿음은 하나의 거룩하고 세계적인 가족인 교회로 우리를 묶어줍니다.

나를 위해서



어떤 치과의사가 어려운 공부를 하는 학생에게 이런 말을 했다. 학생에게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하자 학생이 “원장님은 왜 치과의사가 됐어요?” 하고 물어 보았더니 “치과의사 되어서 돈 많이 벌려고 공부했지. 공부하는 목적은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거야.” 하며 답했다고 한다. 그분은 자신이 진정 좋아서 배운 것이 아니라 단순히 돈 많이 벌려는 목적에서 공부한 것이다. 그와 같은 생각으로 공부해서 투자했으니 그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또 열심히 돈 버는 일에 집중할 것이다. 문제는, 이런 목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자신을 가꾸는 일에는 관심 없고 남에게 보이고 가르치려는 목적에서 공부하게 되면 정작 자신은 영적으로 황폐화가 되고 만다.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출세했기에 요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갑질’과 ‘미투’라는 용어가 생겨나는 것이다. 그 자리에 있지 말아야 될 사람들인데, 억지로 만들어 버려서 생기는 폐단들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공부 잘하는 것만이 인생의 전부라는 인식이 돼버려서 부모도 너나할 것 없이 아이들이 원하던 원치 않던 무조건 공부하는 일에만 전념한다. 토요일도 일요일도 없이 공부하는 기계로 만들어 버린다. 직장도 정시에 출퇴근하고 노동 시간도 줄이고 주말에는 근무도 안 시키는데, 정작 아이들은 주말도 없이 일주일 내내 이른 아침부터 밤늦도록 학교, 학원에서 시간 보내고 주말도 쉴 틈 없이 학원 가서

살고, 방학 때는 기숙학원에서 또 영어 캠프에서 가족과 떨어져 시간 보낸다. 이런 풍토에서 과연 아동 복지나 출산 장려, 청소년 문제 등 사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의문이고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아이들이 커서 출세하여 사회를 움직이는 지도자의 입장이 되면 반복해서 그와 똑같은 사회 아니면 그보다 더 못한 사회를 만들어 버릴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과거에는 못 배우고 없는 사람들이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켰지만, 지금은 배우고 돈 많은 사람들이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현상은 바로 내적인 인성 교육이 전혀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그저 사회적 출세만을 위해 적성에도 안 맞는 공부를 억지로 시켜 출세시켰기 때문이다. 바른 인성을 갖춘 인간이 되기 전에 출세만을 위한 동물적 감각만 배우기 때문에 사회가 전반적으로 비인간적이고 비이성적으로 변질돼 가고 있는 중이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남을 가르치려고 공부하지 말고 자신을 위한 공부를 해야 한다. 자신도 인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서 남을 가르치고 돈 벌고 국가를 위해 일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는 것이다. 자신에게 맞는 배움을 갖고 일을 해야 사회가 균형 있고 조화롭게 형성될 수 있다. 누구나 하느님께서 주신 그릇 크기가 있고 크기대로 맞춰 살아가야만 바른 세상이 될 것이다.

▶ 알렉산드로스 한의중 신부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무엇을 달라고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당첨되면 많은 돈을 교회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복권에 당첨되기 위해 기도해도 되는지 물어오는 사람들을 오랫동안 여럿 만났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종종 사람들이 큰 돈을 벌게 되면 남을 돕고 싶은 강한 열망에 사로잡힌다는 사실을 떠올리곤 했다. 하지만 요즘 뉴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탐욕 때문에 자신의 삶을 망친다는 사실을 보고 알 수 있듯이, 우리들 대부분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기도는 무엇을 달라고 조르는 것이라기보다는 관계에 대한 것이다. 기도는 우리를 하느님의 마음으로 데려다주는 운반 수단이며, 하느님의 마음에 다다르면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느님의 평화’(필립비 4,7)를 발견하게 된다. 기도는 공경하는 마음과 겸손을 지니고 하느님 앞으로 다가가는 기회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참된 유산인 마음의 변화를 추구한다. 기도는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을 향해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는 기회이다. 기도는 무엇인가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당신과 사귀도록 초대해주신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깊게 하려는 노력이다.

아이는 음식이나 옷, 안전 등을 걱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의 부모가 필요한 것을 알고 있으며 공짜로 풍부하게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 하느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

만일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요청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믿을 것이며, 반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예배하고, 사랑하고,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을 그분께 바칠 것이다. 부모의 사랑을 받는 여느 아이처럼, 우리는 성부 하느님의 사랑을 확신할 것이다. 이것 외에 더 중요한 것은 없다.

▶ 아타나시아

소 식

대교구

■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아토스 성산 방문

암브로시오스 한국의 대주교께서는 지난 7월 중순 한국 정교회 일행과 함께 아토스 성산의 라브라, 바토페디, 이비론, 판토크라토로스, 카라칼루, 스타브로 니키타 대수도원들과 세레자 요한 루마니아 스키티, 브라젤리를 방문하였습니다. 방문한 곳마다 수도자들은 한국정교회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정교회를 위해 성화, 향, 성물을 선물하였고, 한국정교회를 위해 기도를 해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신자들에게 축복과 안부 인사 말씀을 전달하였습니다.



■ 영원히 기억하시리이다

지난 8월 11일 니콜라오스 쿠멘다키스 사제가 92세의 나이로 안식하였습니다. 1927년 크레타 섬에서 태어나신 신부님은 한국전쟁 때 13개월 동안 장교로 복무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정교회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소티리오스 대주교님께서 처음 한국에 오셨을 때부터 안식하시기 전까지 많은 지원과 도움을 주셨습니다. 옛 성찬예배서에는 한 보제와 사제가 예배를 집전하는 사진들이 여럿 있는데, 이 사진 속의 사제가 바로 니콜라오스 신부님이십니다. 니콜라오스 신부님의 영혼의 안식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영원히 기억하시리이다.

부산 성모 희보 성당

■ 신데즈모스 수련회

‘좋은 말과 행동’이라는 주제로 신데즈모스 여름 수련회가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재밌고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우리 영적 생활에 큰 성장을 가져올 수련회에 많은 참여바랍니다.



발행처 : 한국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 (02) 362-6371 / Fax (02) 365-2698 / www.orthodoxkorea.org